

주체의 보도륵리의 특징과 역할

김 영 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82페이지)

기자, 언론인들이 보도륵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출판보도사업은 직업의 한 형태이며 출판보도사업에도 직업륵리, 보도륵리가 작용한다.

보도륵리는 기자들이 출판보도활동과정에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리치이다.

출판보도활동과정에는 기자와 취재대상 및 독자(청취자, 시청자)대중사이, 기자들호상간에 반드시 도덕적관계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도덕적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요구가 제기된다. 이러한 도덕적요구를 반영한 행동질서와 규칙이 바로 출판보도활동에서의 도덕이다.

주체의 보도륵리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주체의 보도륵리의 특징은 우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륵리의 최고표현으로 하고있다는 데 있다.

륵리의 최고표현은 사람들의 도덕적행동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옳바른 평가를 내리게 하며 원칙적으로 대할수 있게 한다.

주체의 보도륵리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주체의 보도륵리의 최고표현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기자, 언론인들의 도덕적행동과 비도덕적인 행동을 가르는 기본척도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보도륵리의 최고표현으로 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품성에서 기본핵을 이루기때문이다. 기자, 언론인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품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품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밖의 품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할 때 참다운 도덕품성으로 될수 있다.

주체의 보도륵리의 특징은 또한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는데 있다.

주체의 보도륵리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취재와 집필, 편집활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기자,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상의 문제를 밝힌것이다. 따라서 대중을 떠나서 보도륵리에 대하여 론할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보도륵리의 성격을 규정한다.

주체의 보도륵리가 인민대중을 스승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보고 그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존경,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것으로 하여 기자, 언론인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우리 당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려일으키는것을 자기의 도덕적의무로, 영예로 간주하게 된다.

주체의 보도료리의 특징은 또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기초원리로 하고있다는 데 있다.

주체의 보도료리의 기초원리인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기자, 언론인들과 대중과의 관계, 편집집단성원들호상간의 관계에서 작용한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기자, 언론인들과 취재 및 독자(청취자, 시청자)대상 즉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작용한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기자, 언론인들과 대중이 다같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 운명을 같이하는 관계라는것을 밝혀준다. 기자, 언론인들과 취재 및 독자(청취자, 시청자)대상과의 관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적관계이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대중을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도와주고 그들이 이룩한 로력적위훈과 성과들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하려는 기자, 언론인들의 높은 책임성과 헌신적복무정신이 흘러나오게 된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편집집단안에서도 일관하게 작용한다.

편집집단안의 모든 성원들은 다같이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문필전사로서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들이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로부터 편집집단안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후배는 선배의 방조를 허심하게 받아들이며 서로 협력하고 사심없이 방조하는 동지적의리가 존재하게 된다.

기자, 언론인들과 취재 및 독자(청취자, 시청자)대상 그리고 편집집단안에서 오고가는 믿음과 존중,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도덕적행동은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주체의 보도료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표현으로 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옳바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며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기초원리로 하고있다는데 그 본질적특징이 있다.

주체의 보도료리는 기자, 언론인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니고 취재집필활동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출판보도활동의 성과를 담보하고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체의 보도료리는 무엇보다먼저 기자, 언론인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니고 취재집필활동을 책임적으로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사상적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기자, 언론인들은 직업적특성, 출판보도물의 종합적성격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보건, 체육, 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직위와 직종, 성격과 준비정도, 성별과 나이가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재집필활동을 벌리게 된다. 현실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것을 많이 보고 들으며 군인, 청년, 노동자, 농민, 지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대상을 다 만나보게 되는 기자, 언론인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니지 못한다면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쓸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게 된다.

기자, 언론인들의 취재집필활동은 현실속에서 기자라는 직분으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활

동인것만큼 기자 일개인의 모습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기자일반의 모습으로 반영된다.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당의 출판보도물인것만큼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얼굴이며 기자, 언론인들의 활동은 당의 권위와 관련되어있다. 기자, 언론인들이 취재집필활동과정에 중도반단하고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거나 어려운 일을 맡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기자, 언론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권위, 나아가서 우리 당의 권위를 보장할수 없다. 아무리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정신도덕적으로 수양되지 못한다면 취재집필활동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대중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기자, 언론인들은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닐 때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게 된다.

주체의 보도료리는 기자, 언론인들로 하여금 출판보도활동이 단순한 사회적직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사상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영예로운 사업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군나팔수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취재집필활동과정에 대상하게 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참전자, 영예로운 승리자들로 존경하고 이끌어주는것을 자신의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항상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고상한 품모를 갖추게 하고 당의 문필전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한다.

주체의 보도료리는 다음으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체의 보도료리는 기자, 언론인들로 하여금 출판보도활동에서 사회주의도덕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게 할뿐아니라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한다.

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정신도덕적으로도 완성되어야 한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오늘의 현실은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정신도덕적품모에서도 시대의 선도자, 인민대중의 거울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자, 언론인들의 취재집필활동은 대중의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기자, 언론인들의 활동영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벽찬 현실이며 그들이 대상하게 되는 사람들 역시 그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이다. 대중은 취재집필활동과정에 발휘되는 기자, 언론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그를 통하여 자신의 도덕생활을 비추어보고 반성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품모를 따라 배워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생활기풍이 차넘치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